

KIA, 무너진 불펜 어찌나...

한기주 침몰·손영민 유동훈 부진·김진우 2군에
 해결사 이범호·부활한 나지완 등 '화력'에 기대

잘나가는 KIA 타이거즈의 뼈아픈 역전패가 이어지면서 '불펜 위기론'이 커지고 있다. 더 막강해진 원투펀치의 힘으로 선발진을 굳건히 한 KIA는 신해철사 이범호의 등장으로 타선의 약점까지 보완했다. 하지만 느슨한 '뒷문'이 문제다. 트레비스는 홈추는 불펜에 '비운의 투수'가 되고 말았다. 26일 후반에 첫 경기 선발로 나선 트레비스는 7회까지 1실점으로 삼삼 타선을 봉쇄했지만 2-1로 앞선 8회 2사 1루에서 필승카드로 투입된 한기주가 4타자에게 연속해서 안타를 얻어맞았다. 올드유니폼을 입고 펼친 이날 경기는 2-5 역전패로 끝났다. 트레비스의 앞선 13·19일 등판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트레비스는 13일 두산전에서 4-2로 앞선 6회 2사 만루에서 손영민에게 마운드를 넘겨줬지만 동점 2루타가 나왔다. 8승을 놓쳤지만

팀은 5-4로 간신히 승리를 거두기는 했다. 19일 한화전에서는 삼동섭-손영민-유동훈이 투입된 불펜이 9회 6-3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승리를 날렸다. 손영민이 불펜 에이스로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기록을 보이고 있고, 2009년 철벽 마무리 유동훈도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위기 상황에서 한기주가 마무리 후보로 급부상했지만 이제 막 재활을 끝내고 돌아온 상황. 26일에는 패전 투수의 멍에까지 썼다. 그렇다고 마땅히 투입할 자원이 없다. 양현종과 김진우가 1군 복귀를 위한 테스트를 받고 있지만 두 선수는 선발과 중간 구로다. 불펜의 난조가 이어지면 선발진도 동반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게 KIA의 고민이다. 결국은 '화력'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화끈한 타격으로 초반부터 승부를 결정짓는 게

뒷문이 약한 KIA의 승리전략이다. 26일에도 KIA는 1·2회 찾아온 대량 득점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서 뒷심 강한 삼성에 1승을 헌납했다. KIA의 3번 고민을 해결해준 이범호가 화력의 중심이다. 타점 1위 이범호는 26일 두 번째 타석에서 적시타를 때리며 타점을 하나 추가했다. 이 타점으로 이범호는 통산 39번째로 600타점을 채웠다. 꾸준함으로 타선을 지키고 있는 이범호는 7년 연속 세자릿수 안타와 600득점 고지도 눈앞에 두고 있다. 타선의 또 다른 키는 나지완이 쥐고 있다. 부상에서 복귀한 뒤 고공행진을 했던 나지완은 전반기 막까지 방망이가 무뎠었다. 27일 나지완은 특타조에서 방망이를 가다 들었다. 조범현 감독으로부터 '스윙 크기를 줄여라'는 주문까지 받았다. 승부의 주요 길목에서 알짜배기 활약을 해줬던 나지완의 부활과 함께 이범호를 앞세운 타력의 재점화가 '불펜 위기론'에 빠진 KIA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수영 정다래 무릎에 이상

평영 200m 결선행 '비상'

지난해 광주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정다래(20·서울시청)가 28일 오전 중국 상하이 오리엔탈 스포츠센터에서 2011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여자 평영 200m 예선 경기에 출전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다래에게 큰 기대를 걸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안종택 코치는 27일 "정다래가 이틀 전 훈련하다가 무릎 쪽 근육에 이상이 생겼다. 최악이다"라며 "치료를 해 상태가 호전되기는 했지만 정상 기량을 보여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다래는 지난 4월 동아대회 이후에도 허리 통증으로 한 달 가까이 정상훈련을 소화하지 못했다. 평영 200m는 정다래가 이번 대회에서 출전하는 유일한 종목이자 광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땀던 종목이다. 정다래는 광주 아시안게임에서 2분25초02로 우승했다. 첨단수영복을 입었을 때의 개인 최고 기록(2분24초90)에는 못 미쳤지만 수영복 규제 조치가 시행된 후로는 가장 빠른 기록이었다. 정다래는 이번 상하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009년 로마 대회에 이어 2회 연속으로 준결승에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준결승 진출도 로마 대회 때 정다래와 남자 자유형 200m의 박태환만이 해냈을 정도로 한국 선수들에게는 벅찬 도전이다. /연합뉴스

김태균 계약해지 ... 한국으로 U턴

내년 FA 시장 나서면
 8개 구단과 입단 협상

일본프로야구 지바 롯데 마린스에서 뛰었던 김태균이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한국에 돌아온다. 김태균의 매니지먼트를 맡은 IB 스포츠는 27일 김태균과 지바 롯데 구단이 내년 계약을 해지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태균은 지난 2009년 말 지바 롯데와 3년간 계약금 1억엔, 연봉 1억5000만엔 등 총 5억5000만엔에 계약했지만 양측이 계약을 중

도 해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김태균은 자유계약선수(FA) 신분으로 국내 복귀를 추진할 전망이다. 지난달 20일 허리 통증 치료 차 귀국한 김태균은 부상이 길어지면서 팀에 먼저 계약 해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구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태균이 부상에 발목이 잡히기도 했지만 외국인 선수에게 병축한 일본 특유의 야구 문화에 고전해 국내 복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음년까지 포함해 당시 역수는 90여원 넘는 거액을 받고 지바 롯데 유니폼을 입었던 김태균은 이로써 두 시즌도 마치지 못하고

일본 생활을 정리하게 됐다. 김태균은 지난해 지바 롯데 입단과 동시에 4번을 꿰차고 타율 0.268에 홈런 21방, 92타점을 올리며 팀을 일본시리즈 정상으로 이끌었다. 하지만 올해에는 손목 부상과 허리 통증에 고전하면서 타율 0.250에 홈런 1개, 14타점에 그쳤다. 한국야구위원회(KBO) 규약에 따르면 김태균은 시즌 중에 돌아오더라도 올해는 국내 구단에서 될 수 없지만 시즌 뒤 국내 프로 야구 FA 시장에 나서면 KIA 이범호와 마찬가지로 8개 구단과 자유롭게 입단 협상을 벌일 수 있다. /연합뉴스



서핑 챔피언의 묘기 브라질의 길레르미 히다가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ASP 서핑 챔피언십 1라운드에서 경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정초 서해리그 준결승 진출

스포츠투토배 유소년 야구

화정초가 스포츠투토배 유소년야구대회 서해리그 준결승에 진출했다. 화정초는 27일 군산남중학교 야구장에서 열린 대회 8강에서 지역 라이벌 서석초를 6-5로 꺾고 준결승 티켓을 따냈다. 2회 1사에서 마운드에 올라 6회까지 2실점으로 막은 화정초 정영웅은 3-5로 뒤지던 6회말 역전 2루타를 때리는 등 투·타에서 활약을 하며 승리의 주역이 됐다. 화정초는 28일 올 시즌 소년체전 우승팀 충북 석교초와 결승 진출을 다룬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신지애, LPGA 한국 선수 100승 달성할까

브리티시여자오픈 개막
 잉스터와 동반 플레이

신지애(23·미래에셋)가 브리티시여자오픈 골프대회 1,2라운드에서 줄리 잉스터(미국), 배아트리스 레카리(스페인)와 동반 플레이를 펼친다. 이번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브리티시여자오픈은 28일부터 스코틀랜드 앵거스의 커누스티 링크스에서 시작된다. 올해 아

직 우승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신지애는 메이저대회에서만 7승을 거둔 베테랑 잉스터, 지난해 투어 첫 승을 따내며 신인왕 부문 2위에 오른 레카리와 함께 28일 밤 8시48분(한국시간)에 1라운드를 시작한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면 LPGA 투어 한국 선수 100승이 달성된다. 작년 대회 우승자 청야니(대만)는 신지애의 다음 조에서 모건 프레스넬(미국), 미야자토 미카(일본)와 같은 조로 뛴었다. 최나

연(24·SK텔레콤)과 재미교포 위성미(22·나이키골프), 미야자토 아이(일본)로 구성된 조도 한국 팬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키 185cm의 장타자 미셀 위와 에비앙 마스터스 우승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미야자토(157cm)가 펼치는 샷 대결이 흥미로운 전망이다. 2001년 챔피언 박세리(34)는 산드라 갈(독일), 크리스티 스미스(호주)와 함께 1,2라운드를 치른다. /연합뉴스

MLB 애틀랜타·피츠버그

19회 6시간39분 최장경기

미국프로야구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올해 메이저리그 최장 시간 경기 끝에 진삼승을 거뒀다. 애틀랜타는 27일(한국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터너 필드에서 열린 피츠버그와의 홈경기에서 연장 19회 심판의 오심 덕분에 4-3 짜릿한 승리를 맛봤다. 현지 시간으로 26일 오후 7시11분 시작된 경기는 자정을 넘겨 27일 오전 1시50분에 끝났다. 양팀은 6시간39분간 접전을 벌여 올해 메이저리그 최장 경기 기록을 세웠다. /연합뉴스

엔틱 식탁, 좌탁, 거실장, 침대

ITALY

클래식 소파, 식탁, 침대

ITALY

카우치-20종류

ITALY

SINCE 1992 100% 이탈리아 가구 직수입 도·소매 동구 장동 58-15 동구청-전남여고 사이 장동로타리 **홍스페이스** 가구빌딩